고려불화, 디지털 재해석…"MZ 진입장벽 낮추겠다"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④ 디지털 작가 김상규

플랫폼 '스튜디오 무상' 구축
불교콘텐츠 새롭게 해석 눈길
서울대총불교학생회 활동하며
고려불화 재해석 연구 논문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우리의 문화유산, 고려불화가 지닌 여러 가지 면모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고려불화와 한국 미술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섬세한 선, 고채도의 색, 정교한 문양 등 고려시대 불교회화의 특징이 가득 담아 코끼리와 여의, 해를 표현했다. 조계종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위촉된 김상규 디지털 작가의 일러스트레이션 연작 〈마음의 숲: 수행〉은 고려불화의 조형적 특징과 상징성에 기반해 창작됐다. 디지털 방식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모션 그래픽으로 움직임을 추가한 이 작품은 불교크리에이터 선정 과정에서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다.

"고려 불화 속 동물, 식물, 인물 등은 마음 내면의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그림에 표현된 코끼리, 여의, 해 등은 수행, 가르침 등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김상규 작가는 "불교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미디어를 통한 시각적 노출이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휴식이 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자연물을 바라보는 듯한 마음으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불교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한 디지털 아트를 선보인다는 것.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일상 속 시각적 휴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불교 명상 수행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불교명상과 관련된 옛 불화 '관경십육관변상도' '염불서승도'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표현하려고 준비 중이다.

김상규 작가는 찐 고려불화 팬이다. 학부 때부터 서울대총불교학생회에서 활동하며 명상과 참선을 이어온 김 작가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며 불교를 주제로 한 작업을 꾸준히 했다. 자연스럽게 '고려불화를 재해석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마음의 숲: 수행〉 | 디지털 아트

논문을 발전시켜, 지난 5월에는 고려불화 도상에 담긴 이야기를 담은 '빛과 바람의 그림, 고려불화' 를 출간했다. 김 작가는 저서에서 고려불화가 지닌 우리 미술 고유의 아름다움, 그리고 도상 표현 속에 담긴 의미와 상징에 주목했다. 한국 문화유산으로서 고려불화를 새롭게 바라보고 내면의 평온과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길 기대하며 출간한 이 책은 지난봄 개최된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한정판 공개 후 이어진 호평으로 양장본으로 정식 출간되기도 했다.



김상규 작가는 지난 봄 2023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 다양한 작품과 저서, 제품들을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김상규 디지털 작가의 작품이 궁금하다면?
- 홈 페 이 지 : studiomusang.com
- 인스타그램 : instagram.com/studiomusang
  instagram.com/sangkyu_work

"이미 고려불화에 대한 훌륭한 연구들이 있었기에 기존 연구들을 단순히 종합하고 정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을 피하고 싶었어요. 디자이너이자 시각예술가 시선으로 새롭게 분석하고 분류, 재해석해 일러스트로 표현하는 작업했어요."

김 작가는 자신의 콘텐츠를 여러 방면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도상들의 형태를 재해석해 엽서를 만들고 이에 대한 해설서와 엽서 케이스 등 문화상품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엽서집은 2023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일환으로 열린 '전통문화우수상품공모전' 에서 입선하기도 했다.

김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튜디오 무상' 이라는 플랫폼을 구축, 불교 주제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 문구류, 출판물 등 다양한 포교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있다. 1인 출판사로 등록을 하기도 한 '스튜디오 무상' 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판매하는 것도 구상중이다.

김 작가는 "불교 포교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대상을 불자뿐 아니라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층까지 포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교 콘텐츠 디자인의 현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화와 불교의 전통 수행법 등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젊은 층에게 어렵게 인식되고 있다"고 말한 김 작가는 "일러스트레이션과 무빙 디지털 아트를 통해 MZ 세대들과의 교감을 촉진하고 불교의 수행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불교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족산성진지 복원해 호국역사관으로 활용을"

김우웅 원장, '정족산성 진지' 학술세미나서 주장

진사 · 동 · 서 포량고 복원 주장
역사 · 고고학 등 전문가 참여

정족산성진지를 복원 · 정비하여 호국역사관 및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웅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장은 8월 18일 강화 전등사 전등각에서 개최된 '강화 정족산성 진지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주제 학술세미나에서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정족산성 진지의 진사, 동 · 서 포량고, 대문을 복원하고, 내사, 북 포량고 1, 2, 신당, 하인청, 건물지, 담장시설, 배수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며 "진사, 동 · 서 포량고는 복원하여 호국역사관으로 활용하되 호국역사관은 정족산성, 정족산사고, 정족산성진 및 전등사의 역사, 발굴조사 기록 및 유물 전시, 수장 공간으로 쓰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향후 정족산 사고에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원본의 반환이나 영인본의 보관을 가정한다면, 현재 정족산사고에 보관 중인 〈묘법연화경〉 목판 104매를 이전 · 보관할 수 있을 것"이며 "진사 앞마당은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신웅주 조선대 교수는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복원 고찰' 논문 발표를 통해 "2008~2009년에 시행된 발굴조사 자료는 강화도지도의 검증과정을 거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라며 "지도상에 그려진 건물들이 발굴조사 결과 실제 건물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강화 정족산성진 내에 있었던 건물들은 군사시설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헌에서도 정족창이 1784년에 건립됐고, 1828년(순조 28)에 이전의 4~5칸 규모를 크게 확장됐다고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화 전등사와 강화군청은 8월 18일 전등사 전등각에서 '강화 정족산성 진지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종규 한울문화재연구원 원장의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의의' , 박미화 수도문물연구원 유물관리팀장의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출토유물 특징' ,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의 '강화 정족산성진지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백종호 한국교통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천우 문화재청 전문위원, 현남주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황보경 세종대박물관 학예주임, 안선호 원광대 교수, 안대환 충북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학술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정족산성 진지 복원의 사료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길 바라며, 나아가서는 전등사 다시 정족산사고의 수호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선정족산사고본 실록 등이 환지본처(還至本處)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태산 부군수가 대독한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정족산성진지의 복원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며 "세미나에 참석하신 발표자 여러분들의 고견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강화군청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성민 기자

(재)여시관, 불교 번역상 첫 공모

오는 9월 15일까지 접수 마감
번역자, 출판사 부문으로 선정

〈금강경〉 독송과 수행 정진을 위해 설립된 (재)여시관(如是觀, 이사장 김강유)이 불교 진흥을 위한 역경 불사에 나선다.

(재)여시관은 "붓다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번역 소개한 번역자와 출판사를 시상하고 응원하기 위해 '여시관 불교 번역상' 을 제정했다"면서 제1회 불교 번역상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응모 대상은 2021년 7월 30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출간된 도서로 불교적 가르침 담겨 있으면 가능하다. 출판사별 제출 종수는 제한 없으며, 수상 경력이 있는 출판물도 응모할 수 있지만 절판도서는 불가하다.

응모는 (재)여시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우편과 택배로 도서 2권을 접수처로 발송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9월 15일까지.

심사기준은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외국어 자료에 대해 내용과 형식 모두 저자의 집필 목적과 원고의 성격 등을 잘 살펴야 하며 학술적, 문학적 완성도와 함께 불교 문화 및 사회에 기여한 정도도 고려된다.

수상작 발표는 오는 10월 20일 여시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 도서의 번역자와 출판사에는 각기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와함께 (재)여시관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마음 독후감 대회' 도 연다. 이는 (재)여시관이 제시한 7종의 도서 중 1종을 선택해 독후감을 작성해 보내면 심사 ·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사다. 7종 도서는 〈응작여시관: 백성욱 박사 전기(김영사)〉, 〈무경계(정신세계사)〉,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심경(불광출판사)〉, 〈네 가지 질문(침묵의 향기)〉,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정토출판)〉, 〈도표로 읽는 불교교리(민족사)〉,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불광출판사)〉다.

응모 기한은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20~25매이며, 아래아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yeosigwanfdn@gmail.com)이다.

선정 결과 발표는 10월 13일 여시관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총 7명을 선정해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13회 반야학술상에 임영애 교수 선정

저서 〈금강역사상〉 등 높게 평가
오는 11월 5일 반야암서 시상식



제13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임영애 동국대 문화재학과 교수〈사진〉가 선정됐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학술 활동이나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반야학술상 제13회 수상자로 임영애 교수를 선정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제13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임영애 교수는 〈금강역사상-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2023)〉을 비롯한 20여 권의 저서와 국내외의 저명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미술사학자로 꾸준히 연구활동을 이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화여대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은 임영애 교수는 경주대 교수를 비롯해 중앙아시아학회장, 서울 · 경기도 · 경상북도 · 강원도 문화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문화재학과 ·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로 활동 중이며, 동국대학교 박물관 관장과 불교학술원 문화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운영위원회 위원, 조계종 성보보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 교수는 중앙아시아와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천착해왔다. 특히, 올해 발간된 〈금강역사상-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은 동국대 저서출판지원사업에 선정돼 출간한 연구서다. 책에 실린 160여 장의 사진은 간다라,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의 금강역사상을 임 교수가 발로 뛰어 직접 촬영한 사진이며, 내용도 간다라에서 신라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학술적으로 살펴 깊이가 있다는 평가다.

임 교수는 "그동안 학문 분야 간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던 석굴암 연구를 미술사와 건축사, 불교사가 함께 어우러진 공동 연구를 통해 창건 당시 석굴암 불교조각의 원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제13회 반야학술상 시상식 및 수상기념 강연은 11월 5일 오후 1시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백양사 큰스님 따라 걷는 '장성 참사람 길'

매화 · 수행의 향기 순례길 공개
약사암 · 운문암 · 청류암 등 순례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백양사 큰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장성 참사람의 길' 을 개발, 공개했다.〈사진〉 2021년부터 총 12개 순례길을 개발한 포교원은 2023년 〈예산 경허 · 만공의 길〉 〈서산 백제미소의 길〉 〈장성 참사람의 길〉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개발한 〈장성 참사람의 길〉은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백양사 주변을 순례하는 길이다. 백양사는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본사며 조계종 5대 총림 중 하나였던 고불총림이었던 곳이다. 예로부터 백암산은 명승지로 뽑혔으며, 정도전 · 정몽주와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이 백양사 쌍계루를 방문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글을 남겼다. 또 백양사는 한국 근대 불교의 개혁자 만암 스님과 '참사람운동' 으로 유명한 서옹 스님이 주석했던 선불교 중흥지다.

〈장성 참사람의 길〉은 백양사 일주문부터 백양사의 고불매(고불총림을 의미하는 매화나무), 촬영명소인 쌍계루,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정관 스님이 머물고 있는 천진암 등을 순례할 수 있는 '매화의 향기 순례길' 과 백양사 전설이 전해지는 약사암, 만암 스님과 서옹 스님의 수행처 운문암 · 청류암을 순례하는 '수행의 향기 순례길' 로 개발됐다. 매화의 향기 순례길은 4.4Km 2시간, 수행의 향기 순례길은 8.2Km 약 5시간이 소요된다.

포교원에서 개발한 순례길 팜플렛은 조계종 홈페이지-포교-포교자료-법회와설법 · 문서 메뉴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포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 우리 사찰의 아름다운 길에 기억에 남을 이야기를 담아 국민들과 함께 사유하고 치유하는 수행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임은호 기자

독거 어르신 급식 지원 "답게 살겠습니다"

중신회, 신도림 무료급식소서
8월 19일, 도시락 250개 배포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8월 19일 서울 신도림 무료 급식소에서 '2023 불교 독거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사업' 을 펼쳤다.〈사진〉

신도림 무료급식소(본부장 김범수)와 함께 전개한 이번 사업은 국내 7대 종단 평신도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답게살겠습니다 운동 사회인답게 이웃사랑 캠페인' 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15년부터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독거 어르신 무료 급식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는 신도림 무료급식소에서 사회인답게 우리 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에 처해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지원방안으로 준비됐다.

중앙신도회는 무료 급식 도시락 용품에 필요한 밥, 국, 반찬 용기와 식자재 물품의 구입을 후원했다. 또 생활용품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치 위생용품, 한방 파스 등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서울 구로구 2호선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에 위치한 신도림 무료 급식소는 매주 토요일 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 250개를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하고 있다. 도시락이 준비되는 동안 대기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시간에는 노래 부르기. 손뼉치기, 율동 등 마음을 충족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찬영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한 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독거 어르신들이 소외된 세상에서 나와 세상과 소통하고 건강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아름다운 동행의 이웃사랑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